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5>

참화와 발원의 의의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토로하는 참화와 발원의 계승을 통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선재동자가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계기는 문수보살로부터 모든 부처님에 관한 법과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들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그 법문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득다라삼삼보리심을 내었던 것이다.

문제는 진실한 삶에 뜻을 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자 종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진실한 삶을 구하던 선재동자는 부처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근거와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무량한 세월동안 아득

도(佛道)는 참회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같이, 진실한 삶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란 어둠과 어리석었던 삶을 진정으로 뒤엎고 반성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참회하면서 토로하는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은 그대로가 우리를 모든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실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재동자의 참회를 접하고 나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어두움에 대해 알고 그것을 깊이 뒤우치고 반성하게 되면 진실의 빛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회는 반드시 새로운 진실한 삶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참회하면서 발원하

진실한 삶 구하는 마음 바탕으로

참생명 확립, 진실한 삶 살기위해 귀의

속을 해매던 선재동자는 부처님 법을 만나 비로소 광명된 세계를 열게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두운 삶과 대비되는 부처님의 밝고 거룩한 삶에 대해 접하고 나서 진실한 삶에 눈뜨게 된다. 그야말로 어둠이 빛을 만난 것이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진실의 빛을 만나서 비로소 진실을 알고 동시에 스스로의 어두움에 대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설하는 계승의 첫머리 부분에는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깊이 뒤우치면서 참회하는 설해져 있는 것이다. “불

는 내용은 자신의 어두움을 없애고 광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빛이 진실한 가르침이라면 빛이 오는 곳은 부처님이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들은 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이었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발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공덕을 자기 스스로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궁극적인 종교적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구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종교적 가치라고 하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어떤 언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결과가 되어서 오류에 빠진다.

그러므로 법장이 정의한 돈교가 자기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교’라는 범주에 넣지 말고, 유마거사처럼 그냥 끝까지 침묵으로 남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해원은 끝까지 말 떠난 침묵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다운 침묵은 침묵하는 것까지도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그래도 돈교가 하

돈교는 자신의 교설을 부정하는 꼴

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언어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대상을 드러내는 교설이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교설은 절대적으로 언설에 의존해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언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설이 아닌 관계로 교설을 분류하는 범주로서 오교(五敎)와 같은 교판에 돈교는 포함될 수 없다. 교판은 언설에

나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결국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어떤 이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다른 가르침과도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결국 교설의 형태를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 떠남의 가르침은 끝내 자신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다른 언설에 대해서 비판하

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체득되지 않고서는 인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욕망으로써 살아가고, 보살은 원(願)으로써 살아가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理想)에 도달하려고 발원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대승의 구도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 분이 갖추고 계신 거룩한 덕을 스스로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상을 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 사람의 삶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맑고 밝고 자비롭게 하며 그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향상되며,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스스로 갖추고 불국토를 장엄하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참화와 발원을 통해서 새로운 광명의 삶을 열게 되는 것은 그가 진실한 삶을 구하는 맑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맑고 진실함으로써 진실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진실과 거짓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리석음의 허물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기심으로써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생명을 확립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맑고 진실한 마음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실이아말로 인간생존의 진정한 귀의처가 되기 때문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동시성 원리와 진공묘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사람의 마음이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집단무의식은 우주의 허공을 총만하는 집단무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동시성(同時性)의 원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수 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번 왔었다는 느낌, 현실에서의 이 순간이 언젠가 꿈에서 한번 보았던 순간 같다는 느낌 말이다. 동시성의 원리란 이와 같이 우연의 일치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시성이란 인과적으로 서로 결부돼 있지 않은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의 의

식은 모두 아항속 물속에 잠겨 있다.

물속에 살고있는 ‘나’라는 존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질료는 물이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모인 우주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도 ‘나’도 동일한 물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우주의 역사만 큼이나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한 결과, 이제와서는 ‘너’와 ‘나’의 겉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너’와 ‘나’의 근본은 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물을 매체로 해 ‘너’와 ‘나’ 사이에, 혹은 ‘나’와 ‘바람’ 사이에, ‘나’와 ‘바위’ 사이에, ‘나’와 ‘나무’ 사이에, 혹은 ‘나’와 ‘물고기’ 사이에 정보가 저절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다.

형이상학 · 관념적 구별없는 모두 ‘하나’

우주, 빈 공간 아닌 마음 같은 특성 있어

미있는 일치를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파울 카메러는 <연속성의 법칙> 저서를 통해 동시성과 관련된 경험 사례를 100가 지나 수록하는 등 동시성 현상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동시성 사건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어항 속의 물로 따지면 여가와 저기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냥 한순간은 모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물이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듯이 동시성의 원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형이상적 논란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고 현실이며 우주의 실제(reality)이다.

동시성의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다. 물이 담긴 어항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어항을 우주라고 생각하자. 어항속의 물은 우주의 허공을 꼭 채우고 있는 매체다. 이 어항속의 물은 칼 융에 의하면 ‘집단 무의식’이 된다. 이 어항 속의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한 요동을 친다. 그 결과 이 물로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존재들은 다시 가지치기를 하면서 존재의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은하계도, 태양과 달도, 너와 나도, 나무와 짐승, 공기와 물, 산소와 탄소, 원자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앞 퀴크와 참 퀴크 등 모든 것들이 이 어항 속에 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하여 우주의 허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묘한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공(空)이라고 하셨다. 불교 경전을 보면 공(空)이란 말은 ‘심(心)’, ‘여래장(如來藏)’ 혹은 ‘불성(佛性)’ 등 여러 가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空)이란 마음(心)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⑩

해원의 돈교비판(1)

<간화결의론>이나 <원돈성불론>에서 나타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선사상을 돈교로 이해할 수 있는가’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해보면, 보조는 결코 선을 돈교와 동일시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교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장의 제자인 해원(海源)은 돈교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화엄경을 해설한 <간정기(判定記)>에서 표명한다. 먼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돈교를 ‘말 떠남’으로 정의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어떤 언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결과가 되어서 오류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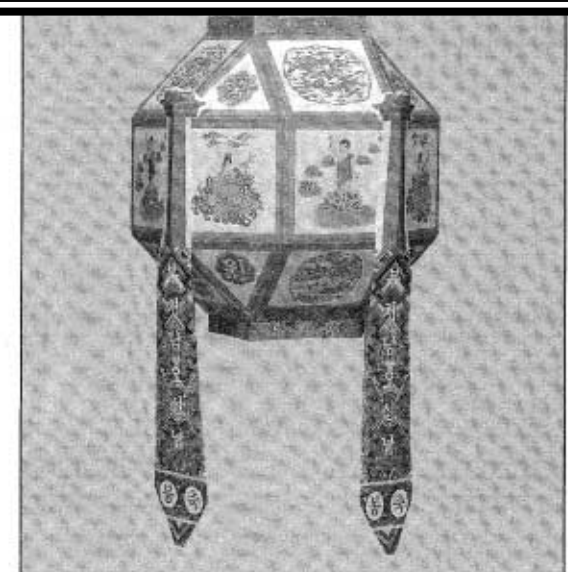
그러므로 법장이 정의한 돈교가 자기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교’라는 범주에 넣지 말고, 유마거사처럼 그냥 끝까지 침묵으로 남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해원은 끝까지 말 떠난 침묵의 입장을 견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다운 침묵은 침묵하는 것까지도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그래도 돈교가 하

는 형국이 된다. 이것은 다른 교설과 구별되는 교설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입장이 존재해야 하는데, 돈교는 자신의 교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해원은 역시 언어와 대상이 관계를 가진다면, 서로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말 떠남’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교판에 포함될 수가 없고, 만약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교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영역이라는 점이다.

만약 일부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선을 돈교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는 돈교처럼 선은 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부정하기만 하는가? 두번째 질문은 선이란 교설과는 별개의 다른 영역인가? 셋째, 만약 다른 영역이라면 선에서 대화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이런 질문은 중국 당 시대나 고려 후기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점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인경(禪學담양연구원)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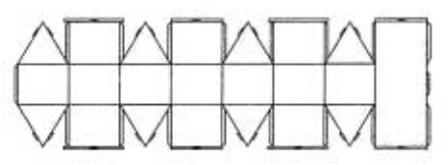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전래의 절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월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전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동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해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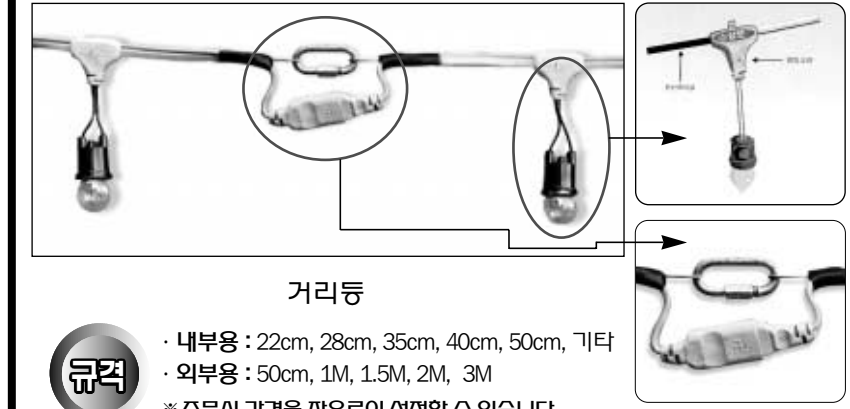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가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속 불량없이 있습니다.

외부용 [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축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 해 드리겠습니다.